

캘리포니아, 프탈산 금지법안 심의

화장품의 프탈산 성분 생식장애 유발 우려 ... 8월말 주의회에 상정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화장품의 프탈산(Phthalate)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하자 화학기업들이 2004년 8월말 주의회 소집시 법안통과를 막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

프탈산 금지 법안을 제출한 Judy Chu 하원의원은 프탈산이 생식기 계통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화장품은 주로 임신 가능한 연령의 여성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어 기형출산을 막기 위해서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미용사나 화학산업 근로자들이 1차적으로 프탈산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어 만성적인 질병을 겪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Chu 의원은 EU는 이미 화장품의 프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미국 식약청(FDA)은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여성들의 건강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화학산업이사회(CICC)는 화학물질 규제의 입법화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사전경고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기업들이 과학적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제검토절차(Regulatory Review Process)를 선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2004년 8월 2일 동 법안 실행의 비용을 산정해 한해 15만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면 추가적 검토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편, Deborah Ortiz 의원이 제출한 Biomonitoring 프로그램 도입 법안은 주의회 보건위원회에서 1표 차이로 부결됐다. 그러나 찬성자들은 다음 회기에 동 법안을 다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기업들은 Biomonitoring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으나 법안이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혈액에서 화학성분이 검출되는 것만으로 사용을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혈중에서 특정 화학성분이 검출됐다고 해서 건강에 해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8/20>